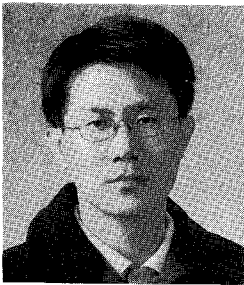


소비자를 겨냥한 시장 확대로 양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모색



정 민 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2002년 한해는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경기와 지사체선거 등으로 수요증가 요인이 매우 많은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공급물량이 증가하여 양계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였다. 2003년 들어 연초부터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북한의 핵문제, 가계 부채규모 증가 등에 따른 부담으로 소비경기가 위축되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세계경제는 미-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되어 지난해보다 높은 2.5%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환율은 유로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일본엔은 미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는 소비증가율이 낮아져 5%대의 하향 안정이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수출이 국내경제를 견인하고, 하반기에는 국내투자가 성장전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는 2002년보다 높은 3%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2003년은 DDA 농업협상에서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의 세부원칙(모델리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상한이 설정되면 고율 관세품목의 상당수준 관세 인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칠레간 FTA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칠레 FTA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보면 칠레산 계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은 없으



며, 닭고기는 2004년까지 연간 2천톤이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무관세 쿼터물량(TRQ) 2천톤은 국내 닭고기 수입물량의 2% 수준(2002년 기준)으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계산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한해 양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면 계란은 2002년에 비해 공급물량이 감소하여 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육계는 공급물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에 계란 산지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산란종계병아리 입식이 감소하여 2003년 산란계 사육수수는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4,999만수가 될 전망이다. 분기별 산란계 사육수수 잠재력 지수는 1/4분기의 경우 지

난해 동기보다 높지만 2/4분기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 사육수수가 감소함에 따라 계란생산량이 줄어들어 2003년 계란 가격은 전년에 비해 3.9% 상승할 전망이다.

2003년 육계 사육수수는 육용종계병아리 입식의 증가로 지난해 보다 7.2% 증가한 5,809만수가 되고 닭고기 생산량은 육계사육수수가 증가하여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29만 8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별 도계물량 잠재력 지수는 1, 2/4분기 모두 지난해 동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3년 닭고기 국제가격이 보합세를 이루는 가운데 환율과 관세율이 하락함에 따라 수입닭고기 평균도매원가는 다소 낮아져 닭고기 수입량도 지난해보다 2.9%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육계 산
지가격은 지난 해보다 2.0% 정도 하락할 전망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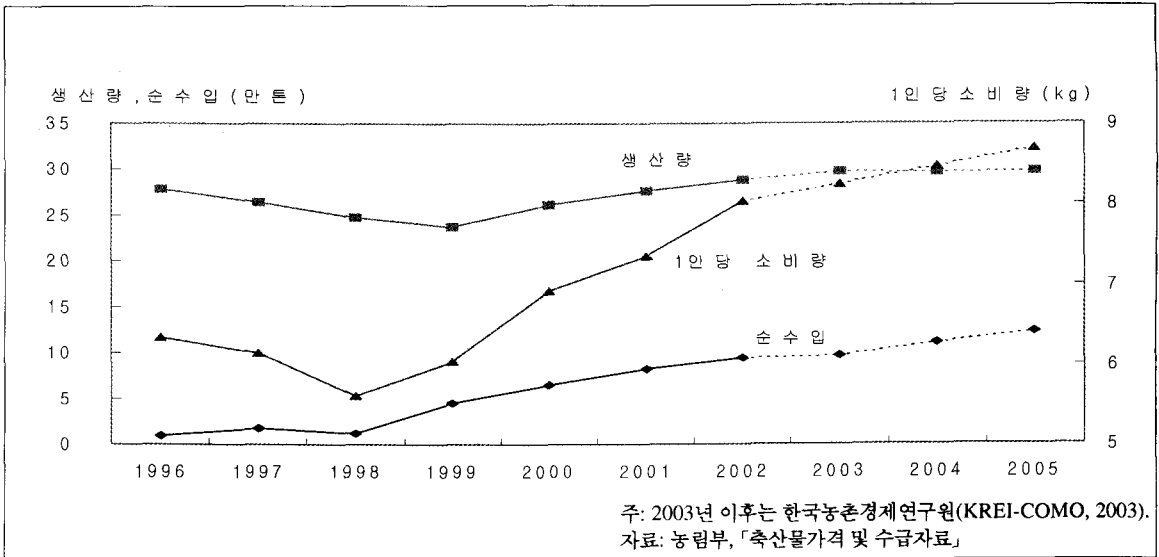
양계산물중 계란·가공품 수입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0.4%에 불과하여 국내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작지만 수입닭고기는 시장점
유율이 24%(2002년)여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닭고기 수입은 수입닭고기에 대
한 국내 수요증가와 수입단가 하락으로 꾸준
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수입닭고기 가격은 수입단가 하락
으로 2001년보다 17.5%하락한 것으로 추정
되며, 2003년 이후에도 환율과 관세가 하락함
에 따라 수입닭고기 평균도매원가는 계속 하
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가금육
수출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내외이
지만 중국산 가금육은 경쟁관계에 있는 태국
산에 비해 가격과 지리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이 있어 질병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의 닭

고기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
으로 전망된다.

2003년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가격하락
으로 지난해 보다 2.6%증가한 8.2kg으로 전
망된다. 이는 2002년 12월 연구원(KREI)에서
조사한 소비자 구매 의향에서도 비슷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닭고기 소비의향 지수는 지
난해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3년은 104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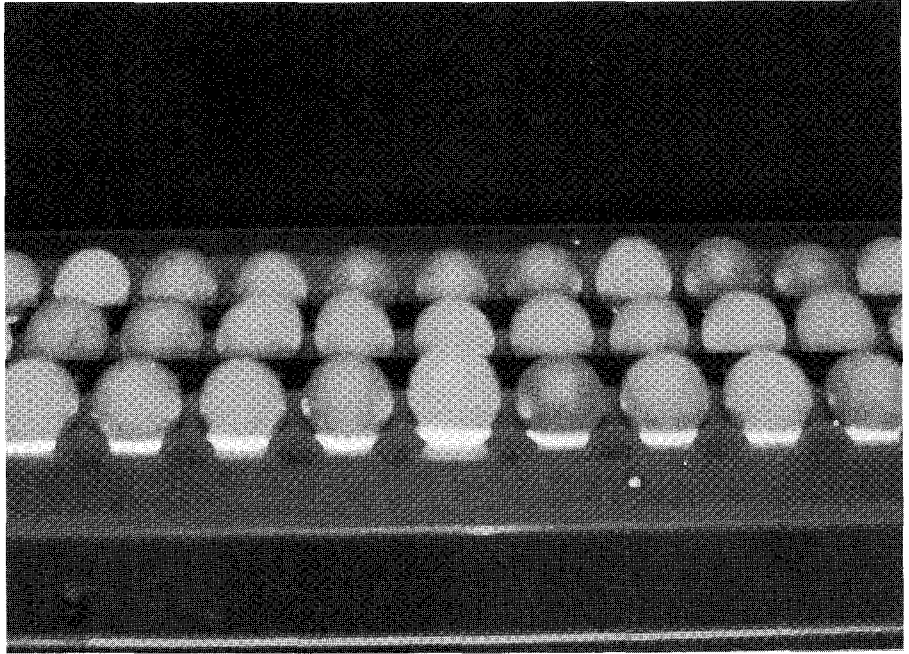
2003년은 양계업에 있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을 돌이켜보면 소비
가 부진하여 계란가격은 연중 약세를 면치 못
하였고 육계는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
데 생산성이 회복되어 하반기에는 가격이 크
게 하락하였다. 양계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원하는 양만
큼을 생산해야 한다. 과잉공급 국면에 들어서
면 가격이 폭락을 하고, 과소공급 국면에 접어
들면 가격이 폭등하여 수입이 크게 증가하게



〈그림1〉 닭고기 생산량, 순수입 및 1인당 소비량 전망

된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하며 위생적인 계란과 닭고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사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3년은 닭고기 공급 물량 잠재력이 매우 높아 농가들의 입식 자체와 시기별 출하



물량 조절이 어느 해 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며, 계란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하여, 닭고기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한해이다.

닭고기 수출물량은 3천톤으로 2001년 1천 3백톤보다 크게 늘었으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매우 작다. 그러나 닭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수출 물류비·포장비 지원을 2002년 kg당 54원에서 2003년 70원으로 확대하고, 닭고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우수 바이어 초청 및 현지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닭고기 수출은 다소 활성화 될 전망이다.

계란과 닭고기에 있어서 품질등급제가 도입되어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계란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위생성과 신선도가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닭고

기에 있어서도 위생성과 신선도는 중요한 항목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품질에 따른 새로운 계란 등급제가 2001년 12월부터 대구·경북양계축협 대구집하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2003년 1월부터 8개 작업장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닭고기의 품질등급제도 금년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브랜드 상품에 대한 구매의향이 강해진 만큼 양계산물의 생산 및 유통도 안전성, 위생성, 신선도를 바탕으로 한 얼굴 있는 상품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양계업 종사자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산물의 품질을 지금보다 한층 더 높여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할지라도 양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가능하리라 본다. **양계**